

#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정성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희망세상>에서 달마다 뵙던 것은 이번 호로 마지막입니다. 더 나은 민주화의 길로 가기 위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관지를 계간지로 바꿔 가을을 준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우리 안을 더 들여다보고 바깥을 제대로 살피면서 정신을 가다듬는 기간으로 쓰려고 합니다.

6월!

저에게 6월은 '87년 6월 민주시민 항쟁의 함성, 깃발과 함께 '50년 6.25전쟁의 참상이 겹칩니다. 분단과 전쟁, 분열과 대결을 딛고 우리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반 성취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똑똑하고 부지런한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신문, 방송과 사람들은 특히 산업화에 대해서 특정인의 업적을 지나치게 미화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6월 민주시민 항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보통 시민들, 애청으로 벡타이 부대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지 않았으면 전두환 신군부독재 세력이 그렇게 쉽사리 손을 들었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역을 맡고 있었는데, 6월 13일~15일 서울 거리, 명동성당의 분위기를 보고 신군부독재세력은 쫓겨 나갈 것으로 확신했었습니다. 그때 매일 시위를 마치고 모금함을 열었는데 천 원, 만 원짜리 그리고 십만 원짜리 수표 등 2,000만원이 넘는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눈으로 확인하고 “아! 우리 국민들이 이기는 구나” 하며 감격했던 그 전율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독자 여러분!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단호함, 헌신성, 그 열정을 토양으로 하여 우리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문명을 일구어 내야만 합니다. 안팎의 거대 자본, 지구 생명의 위기, 내부 분열, 동북아 국제권력질서의 급변, 남북관계의 후퇴 등 우리가 도전, 극복, 창조해야 할 과제는 참으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통일된 새로운 문명국을 향한 제2의 민주화운동!

그 길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고 그 대열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가을에 뵙겠습니다.